

## 존경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무현이 다시 인사 올립니다.

지난 선거에서 보내주신 지지와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저를 지지하지 않으신 분들의 선택에 대해서도 저를 더욱 다듬어 키워 시려는 깊은 뜻으로 받아들이며 함께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저의 낙선을 아쉬워하십니다만 정작 저는 크게 낙담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후반기가 있으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할 일은 많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은 사회의 불의와 잘못된 제도를 바로 잡고 뜯어고치는 일입니다. 후세에 부끄럼 없는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제게는 낙선이라는 결과보다 선거과정에서 터무니없는 증상환약과 헛소리으로 입은 마음의 상처가 훨씬 더 큰 고통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제가 한 일에 대해서는 한결 솔직이 없이 책임을 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한 욕설과 비난이 정치를 하는 이상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가연 정치를 계속 할 수 있을지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치풍토가 달라지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전진해나가고 싶습니다. 아울러 정치인이기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할 작정입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려 합니다.

작은 규모나마 '지방자치연구소'를 새로 차리고 동구자랑 운영도 계속할 것입니다. 지난 4년동안 "인사가 없다" "무해해 주었느냐"라는 질책은 정말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인사"는 시간과 돈이 필요한 일이고 "지역사업"은 거짓말을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려는 마음에도 이 두가지는 여전히 큰 고민거리입니다.

그러나 저는 원칙을 지키려 합니다. 13만 유권자를 다 만나려면 하루에 100명씩 만나도 3년 반이 걸립니다. 저는 돈을 얻기위하여 인사를 다니는 대신, 2시간에 실제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려 합니다.

연하장 한 번 보내는 데 1천만원 이상의 돈이 듭니다. 저는 그 돈을 실제 정치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에 쓰고자 합니다. 선거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 하여 정치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에 돈과 시간을 낭비하거나 거짓말을 하고 다니지는 않을 것입니다. 생략 명원희 당선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원칙은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앞으로는 유권자 여러분들과 자주 대화와 토론의 자리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저에게 도움을 청할 때에는 언제든지 나서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사회나 나라의 발전에 필요한 일을 찾아서 뛰어다닐 작정입니다. 이런 일에도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뜻을 모아 함께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밖에도 여러가지의 후원이 우리사회를 보다 나은 세상으로 만드는데 큰 몫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후원을 바랍니다.

주민 여러분 하시는 일에 행운이 있기를 빌며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1992년 5월

노 무 현 드림

## 존경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무현이 다시 인사 올립니다.

지난 선거에서 보내주신 지지와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저를 지지하지 않으신 분들의 선택에 대해서도 저를 더욱 다들여 키워 시려는 같은 뜻으로 받아들이어 함께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저의 낙선을 아쉬워하십니다만 정작 저는 크게 낙담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흠뻑지가 있으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할 일은 많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은 사회의 불의와 잘못된 제도를 바로 잡고 끌어다치는 일입니다. 후세대 부패영화를 바라치 않습니다. 제게는 낙선이라는 결과보다 선거과정에서 터무니없는 증상모략과 헛소문으로 입은 마음의 상처가 훨씬 더 큰 고통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제가 한 일에 대해서는 한결 순심이 없이 책임을 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한 욕설과 비난이 정치를 하는 야당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어떤 정치를 계속 할 수 있을지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치풍토가 달라지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전진어나가려고 합니다. 아울러 정치인이기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할 작정입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려 합니다.

작은 규모나마 '지방자치연구소'를 새로 차리고 동구지역 운영도 계속할 것입니다. 지난 4년동안 "인사가 없다" "뭘 해주었느냐"라는 질책은 정말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인사"는 시간과 돈이 필요한 일이고 "지역사업"은 거짓말을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려는 마음에도 이 두가지는 여전히 큰 고민거리입니다.

그러나 저는 원칙을 지키려 합니다. 13만 유권자를 다 만나려면 하루에 100명씩 만나도 3년 반이 걸립니다. 저는 표를 얻기위하여 인사를 다니는 대신, 그 시간에 실제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려 합니다.

연하장 한 번 보내는데 1천만원 이상의 돈이 듭니다. 저는 그 돈을 실제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에 쓰고자 합니다. 선거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 하여 정치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에 돈과 시간을 낭비하거나 거짓말을 하고 다니지는 않을 것입니다. 성령 영원히 당선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원칙은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앞으로는 유권자 여러분들과 자주 대화와 토론의 자리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저에게 도움을 청할 때에는 언제든지 나서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사회나 나라의 발전에 필요한 일을 찾아서 뛰어들 작정입니다. 이런 일에도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뜻을 모아 함께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밖에도 여러가지의 후원이 우리사회를 보다 나은 세상으로 만드는데 큰 몫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후원을 바랍니다.

주민 여러분 하시는 일에 행운이 있기를 빌며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1992년 5월

노 무 현 드림

0000140